

한빛원전, 이동진료용 행복드림 버스 전달식

광주시 포용국가 아동정책 지역 순회 정책토론회 개최

영광군에 지역 복지활성화·보편적 복지확대위해 전달...1억9천만원 예산 지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본부장 한상욱)는 지난 10월 31일 영광군 보건소와 지역 복지활성화 및 보편적 복지확대를 위한 영광군 이동진료용 행복드림버스 전달식을 가졌다.

‘영광군 이동진료용 행복드림버스’는 버스를 이용해 의료취약 지역 소외계층에게 찾아가는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높아진 의료요구를 수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올해 한빛원전은 총 1억 9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영광군보건소 윤정희 소장은 ‘한빛원전의 지원으로 지역의 의료 취약계층 삶에 활기를 되찾아 줄 수 있게 되었으며, 행복드림버스를 통해 주민 보건교육, 미용봉사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이에 마주섭 한빛원전 대외협력처장은 ‘앞으로도 영광군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하였다.

한빛원전은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문화교실 지원사업 등 지역 복지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과 소통하며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영광=서현권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직무대리 고득영)은 지난 1일 광주시청에서 ‘제3차 포용국가 아동정책 지역 순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발전 방안과 아동권리보장원의 역할을 논의하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을 비롯해 고득영 아동권리보장원장 직무대리(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박미정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광주, 전북, 전남 지역의 아동복지 분야 학계, 전문가와 현장실무자 및 정책관련자들이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아동정책을 논의하였으며, 올해 7월 설립된 아동권리보장원의 향후 역할에 대한 지역과 현장의 기대를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인사말에서 “최근 진행된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포용국가의 아동수당 도입, 아동정책영향평가 체계 도입,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등에 대해 국제사회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앞으로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포용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구체적인 아동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은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이숙 교수로 좌장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추진단 김지연 팀장은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앞으로 아동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아동복지 분야에서 지역과의 긴밀한 협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고득영 아동권리보장원장 직무대리는 “아동권리보장원은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책임지고 이끌어 갈 핵심기관으로써, 적극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놀이권, 참여권 등 모든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이라며 다짐을 밝혔다.

신봉우 기자

무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 자연생태 문화체험

총 27명 참여 스트레스 해소

무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의 날(10.10)을 기념하여 ‘마음 나누기 희망 더하기’를 주제로 10월 31일 국화꽃 축제가 열리고 있는 인근 함평군으로 자연생태 문화체험을 다녀왔다.

이번 문화체험은 센터 회원과 가족 총 27명이 참여하였으며, 외부활동에 기회가 적은 정신장애인들에게 사회·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감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축제장 안 익새동산, 9층 꽃 탑, 독립문 등 형형색색의 만발한 꽃으로 꾸며진 조형물을 보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였고, 문화유품전시관을 관람하여 다양한 작품 감상을 통해 추억을 회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근에 위치한 자연생태공원을 방문하여 아나콘다, 악어, 거북이, 나비 등 다양한 곤충·파충류를 눈으로 직



접 보며 자연생물을 관찰하고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체험에 참여한 한 회원은 “어제 밤부터 학창시절 소풍가는 기분이 들어 잠을 설치다.”며 “이렇게 맑고 아름다운 꽃을 직접 보니 스트레스가 모두 날아가는 기분이다.”고 대단히 만족해하였다.

무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이번 자연생태 문화체험 행사가 회원들 삶의 활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례군, 노인의료복지시설 결핵 검진

7개소 300명 대상

구례군은 5일부터 4일간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7개소에서 3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실시한다.

이번 노인의료시설 결핵검진은 결핵 발병과 사망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은 노인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고 확산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검진 대상은 집단생활로 결핵에 취약한 노인의료시설의 외상환자를 포함해 입소자와 종사자 등이 다.

검진은 대한결핵협회와 연계해 흉부 엑스레이 촬영과 요소전자 객담 검사를 실시하며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누워 있는 상태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동검진장비를 이용해 결핵검진을 실시한다.

구례군보건소 관계자는 “고령의 어르신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매년 검진을 받는 것이 결핵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며 결핵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7

야호센터
월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 Together 광산구